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법회에는 한일 양국 불교계 대표 300여 명이 참석했다. 17일 환영만찬에서 일본 측 인사의 역사 왜곡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일본측의 사과와 참회발언으로 대회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양국의 경색 국면에서 관계개선의 기대감을 비추기도 했다.

한일불교계 공동선언문

한국과 일본의 불교도는 불기 2557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34차 한일·일한 불교문화교류대회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최하였다. 본 대회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위한 세계평화기원법회와 '전통불교문화의 보존과 계승'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기에 결의 선언한다.

하나, 한일 양국 불교도는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통일을 위하여 무력에 의한 모든 결과를 부정하는 동시에 제반문제에서도 근본적으로 불교정신으로서 대처하며 밝은 불국도와 세계평화 건립을 위해 노력을 심화한다.

하나, 한일 양국 불교도는 양국의 경직된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국가와 종파, 교의의 차이를 뛰어넘어 불교의 지혜와 자비정신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류화합공생기원' 건립정신을 이어받아 역사를 직시하고 우호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하나, 한일 양국의 협의회는 상호간 기본적으로 또 실무적인 과제로 학술, 문화, 민간 교류 등 세부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중단, 사찰간 교류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하나, 이상의 제과제를 원만히 성취하기 위하여 양국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각 분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합동위원회의 또는 실무자회의 등을 개최하여 이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확인하였다.

불기 2557년 6월 18일  
한일·일한 불교문화교류협의회

# “불교 전해준 한국에 고통 준 것 참회”

## 日불교계 대표, 18일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서 참회

“근세전쟁으로 한국에 고난을 준 사실이 깊이 반성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문제가 위구되지만 양국 불교계가 더욱 더 공생실전의 발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경색 국면에서 일본 불교계가 과거사 참회를 시작으로 불교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을 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국은 불교 등 다방면의 문화를 일본에게 전해준 어머니같은 나라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양국관계 회복을 기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가 6월 17~20일 3박 4일간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최한 제 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불교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회복하려는 뜻에서 모인 자리였다.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또 일본이 과거 한국에 고난을 준 사실을 반성한다는 발언과 함께 양국관계 회복에 불교계가 앞장서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스님은 “한국에 고난을 준 사실을 일본불교계를 대표해 반성한다. 양국 불교계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욱 공생실전의 발걸음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에 대해 불교계가 서로 포용하는 자세로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라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경제 침체와 양국화 상황에서 부처님이 남기신 ‘공동체 의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양국 불교계가 서로 포용하는 자세로 양국 가교역할을 수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재 마련 등 한국과 일본이 공동인식을 통해 미래 세대의 바른 불교문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며



17일과 20일에는 조계사 참배가 19일에는 동학사 등 전통사찰 순례가 진행됐다.



한국 스님들과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일본 스님들.

“언어가 달라도 ‘불교문화’로 하나되는 게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법회에서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홍과 스님의 상축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 부회장 후지다 류조 스님의 표백문 봉정(佛頂)이 진행됐으며 양국 불교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불교정신을 살려 인류화합 정신을 계승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전일본불교회 회장 한다 고 준 스님을 대신해 축사를 낭독한 전일본불교회

### 학술·문화 등에 교류 협력기로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 합의 ‘한일불교계공동선언문’ 발표

WFJ일본센터 운영위원 코마즈 요시하루 스님은 “과거 불교를 비롯해 다양한 학문과 기술이 한국을 통해 일본에 전해졌다”며 “불교도의 이러한 활동이 관용으로 발전돼 세계평화로 이어진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코마즈 요시하루 스님은 또 “지난 동일본 지진에 한국 스님들이 많은 도움을 줬 일

본불교계가 큰 힘을 받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이어 양국 불교계 대표들은 ‘전통불교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열고 불교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양국 불교계가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일본측 대표들은 19일 공주 마곡사와 동학사, 논산 개대사, 천태종 대전 광수사 등 한국 전통사찰들을 순례하며 한국불교를 체험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대표들은 비구니 강원이 있는 동학사에서 큰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양국 대표들은 20일 서울 조계사를 참배하고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해 ‘다도’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누며 우호를 다졌다.

한편, 17일 열린 환영만찬에서 일한불교교류협의회 부회장 모치다 니치유 스님은 “일정전쟁 전승 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중국의 중주권을 포기시키고 조선의 독립을 이뤄냈다”고 만찬 축사를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승 스님이 바로 문제를 제기하자 모치다 니치유 스님은 사과 후 발언 삭제했다.

공주=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불단에 헌화하는 한일 양국 대표 스님들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한일·일한 불교 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송정 스님(왼쪽)과 노자와 류코 스님

## “한일 관계 개선에 불자들이 앞장서자”

### 한국대표 자승 스님 예방한 日 대표 미야바시 쇼겐 스님

“한국에서 양국 관계가 불교를 중심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일 양국 불교계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 서시다.” 미야바시 쇼겐(宮林昭彦) 스님(일본 정토종 분산 광명사 법주)은 6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번 제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불자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대회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총무원을 예방한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시 쇼겐 스님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일본 정토종의 어른으로 1977년부터 30년 넘게 한일불교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이다. 스님은 2004년부터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을 맡아 일본 소재 한국문화회 화자 환수, 학술대회 및 평화기원법회 등을 우호증진과 함께 양국 비구니 스님 교류 등 불교 발전에도 나서고 있다.

양국 불교계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불교발전과 더불어 양국 관계 개선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일본 불교계를 대표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스님은 한국사찰 순례에서 “일본에서는 비구니 스님이 점차 줄고 있는데 동학사에서 6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정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특히 주지 스님이 물리학자란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순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정치적 문제로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에서 여러 스님들과 불자들을 만나니 불교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느꼈다”고 대회 참가 소감을 말했다.

이날 예방자리는 자승 스님을 비롯한 한 한국불교 대표들과 산미나리 씨로 만든 차를 마시며 다도(茶道)를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일본측 스님들은 “기본적인 다도는 같지만 한국차는 열매 등을 부어서 차를 만드는 것이 특이했다”며 차의 맛을 평했다. 자승 스님은 “예방 자리에서 수백명이 이 차를 마셨지만 차의 맛까지 섬세하게 평가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러한 사례가 현재 경제대국인 일본을 만든 원동력 같다”고 답했다.

스님은 “일본에서는 모든 불법은 사람을 통해 전해진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교류대회를 통해 역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향후



###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알기 쉬운 **수강생모집**

#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p><b>강의 일정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li> <li>◇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li> <li>◇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li> <li>◇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li> <li>◇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li> <li>■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li> <li>■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li> <li>■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li> <li>■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li> </ul>
---	--